

다니엘서 - 번호 106

심판의 베일을 벗기다: 9/11부터 일요일법까지 - 예언적 분석

Jeff Pippenger

2024-02-29

산 자들에 대한 조사 심판은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고, 집행 심판은 곧 임할 일요일 법령 때 시작된다. 이 두 심판의 기간은 세 번째 언약의 사자와 세 번째 엘리야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사역을 나타내며, 이는 밀러파 역사에서 시작된 엘리야 사자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언약의 사자를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실제 성전을 두 차례 정결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의 몸과 그의 영적 성전을 예표하였다. 그의 이 땅의 실제 성전은 광야의 성막으로 시작하여, 솔로몬의 성전, 바빌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 재건된 성전, 그리고 헤롯이 46년에 걸쳐 개축한 뒤의 동일한 성전이였다.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는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축복했지만 포로기 이후에 재건된 성전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개축된 성전은 그리스도의 가시적 임재로 축복을 받았다. 헤롯이 개축한 성전의 역사에서 그리스도는 말라기 3장을 성취하여 성전을 두 차례 정결케 하셨다. 첫 번째 정결에서 그리스도는 성전을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라 하셨으나, 마지막 성전 정결에서는 그것을 유대인들의 집이라 하셨다.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1798년부터 1844년까지 46년에 걸쳐 영적 성전을 세우셨다. 1844년 10월 22일, 말라기 3장의 성취로 그분은 자기 성전에 갑자기 임하셨고, 그리하여 미련한 처녀들을 걸러내셨다. 그 후 그분은 두 번째이자 최종적인 정결을 이루시기 위해 셋째 천사로 임하셨으나, 고대 이스라엘의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현대 이스라엘은 그 일을 마치는 데 필요한 믿음이 부족했다.

2001년 9월 11일, 그리스도께서는 곧 닥쳐올 일요일법 하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1989년에 봉인이 풀린 지식의 증가를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현실에 깨어나 정결케 될 때 성취되는 두 번째 성전 정결을 이루시기 위해 돌아오셨다. 그 지식의 증가는 늦은비 기별을 나타내며, 그것을 열 처녀의 비유의 맥락에 놓으면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된다. 1989년 종말의 때에 봉인이 풀린 다니엘 11장 마지막 여섯 절의 기별은, 그 절들 가운데 44절에서 '동방과 북방에서 오는 소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늦은 비의 기별은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이며, 동방과 북방의 기별이다. 동방과 북방은 각각 이슬람과 교황권을 뜻하며, 메시지의 차원에서 그것들은 2001년 9월 11일부터 머지않아 시행될 일요일 법령 사이에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에 의해 모조되는 그 기별을 대표한다. 2001년 9월 11일은 이슬람(동방)을, 일요일 법령은 짐승의 표(북방)를 대표한다.

불순종한 선지자가 나귀와 사자 사이에서 죽은 것으로 예표된 바와 같이,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임종은 그 두 이정표 사이로 표상된다.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임종은 교황 권세를 격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최종 박해를 시작하게 하는

'동방과 북방에서 나오는 소식'으로 표상된다. 그 소식은 머지않아 미국에서 시행될
일요법령에서 시작되며, 바로 그곳이자 그때에 셋째 화의 이슬람이 갑자기 타격을
가한다. 그 뜻밖의 공격은 국가적 파멸을 초래하고 열방을 분노케 하여,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의 기치 아래 모든 나라를 이슬람에 맞서 하나로 결집시키는
경제적·정치적 추진력을 제공한다.

세 번째 엘리야로 대표되는 역사에서, 세 번째 화를 지목하는 그 메시지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교황권의 권위의 표를 경배한 것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이슬람임을 알린다. 세 가지 로마, 세 가지 바벨론, 세 가지 엘리야, 그리고
길을 준비하는 세 전령들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화는 세 화의 삼중 적용으로 확립된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한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여! 이는 아직 나팔을 불지
아니한 나머지 세 천사의 나팔 소리로 말미암음이라. 요한계시록 8:13.

화이트 자매는 스미스의 책 '다니엘과 계시록'을 강력히 추천하면서 모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은 그 책을 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가 방금 쓴 것만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은 그녀의 추천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주께서는 현대 진리의 빛을 담은 책들이 보급되도록 권서 사업에 들어갈 일꾼들을
부르신다. 세상 사람들은 시대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을
깨우쳐 줄 책들을 그들에게 전해 주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대쟁투』, 『부조와
선지자』, 그리고 『시대의 소망』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호주에서 많은 이들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담긴 위대한 교훈을 열심히 읽어 왔다. 이 책은 많은 귀한
영혼들이 진리를 알게 되는 수단이 되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사상』을
보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 나는 이 책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책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다.

"오랫동안 진리 안에 있던 이들은 잠들어 있다. 그들은 성령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한다. 중대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사소한 문제들이 세상에 주어져야 할 빛을
가리도록 우리가 허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Manuscript Releases, 제21권, 444쪽.

다니엘서의 'the daily'에 대한 밀러파 견해를 거부한 사람들이 또한 거부했던 그 책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불렸다. 이전 인용에서 언급된 책들을 보급할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다면,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책을 직접 소유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책은 다니엘서의 'the daily'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주창한 자들의 공격의
초점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그 책을 다시 쓰고 'the daily'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제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화이트 자매는 다니엘서의 'the daily'를 둘러싼 반역의 두 주요 지도자에 대해 언급할 때,
그들(프레스콧과 대니엘스)이 '원인에서 결과로 추론하는' 능력이 없다고 자주 지적했다.
라오디게아적 재림교인들 중 역사 수정주의자들도 같은 문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1888년 이후의 반역 역사 전반에 걸쳐, 지도자들은 자신의 생애 어느 시점에서 "the
daily"라는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반역은 "결과"였고, "the daily"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원인"이었다.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 수정주의자들은 성경과 예언의 신의 증언으로 결코 뒷받침되지 않는 그들의 수정된 증언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로 하여금 재림교 역사에서 바로 그 역사적 반역자들이 실제로는 반역하지 않았다고 믿게 만든다. 그들은 그 "결과"를 반역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원인"을 찾을 가능성 자체를 닫아 버린다.

떠도는 새처럼, 날아다니는 제비처럼,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잠언 22:6.

하나님의 백성은 반역을 분별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에는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원인을 바로잡아야 한다. 다음 글에서 화이트 자매는 아간의 이야기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보여 주셨음을 깨달았다. 고대 이스라엘처럼 그분의 능력의 놀라운 현현을 목도하는 특별한 영예를 받은 자들이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그분의 명백한 지시를 무시하는 길을 감행한다면, 그들은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분은 불순종과 죄가 그분께 심히 가증하며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신의 백성에게 가르치려 하신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서 죄가 발견될 때, 그 죄를 그들 가운데서 제거하기 위해 즉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래야 그분의 노여움이 그들 모두 위에 머무르지 않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그러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백성의 죄를 간과한다면, 그분의 노여움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전체로서 그 죄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과거에 자신의 백성과 더불어 행하신 처사에서, 교회를 잘못으로부터 정결케 할 필요성을 보여 주신다. 한 사람의 죄인이 온 회중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배제하는 어둠을 퍼뜨릴 수 있다. 백성들이 자신들 위에 어둠이 드리우고 있음을 깨닫고 그 원인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분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잘못들이 찾아내어져 제거될 때까지, 큰 겸손과 겸비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존재함을 보여주신 잘못들을 우리가 책망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일어난 편견과, 우리가 거칠고 엄하다는 외침은 부당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라고 명하셨고,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백성 가운데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쳐 버린다면, 그들은 사실상 죄인을 지지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며, 동일하게 유죄가 되고 마찬가지로 반드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 죄인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환상 중에 나는,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잘못과 죄를 다루는 일을 하나님의 종들이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 많은 사례들을 지적받았다. 이러한 잘못들을 변명해 주거나 눈감아 준 사람들은, 그들이 분명한 성경적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회피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매우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성품의 소유자로 여겨졌다. 그 일은 그들의 감정에 내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피했다. 증언, 3권, 265쪽.

재림주의 안에서 반역한 지도자들의 역사는, 그들의 반역에서 거의 항상 나타나는 과정 중 하나가 개인적 경험의 어느 시점에서 "the daily"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스미스의 책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교리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대한 개척자들의 이해를 훌륭하게 개관해 준다. 그 장들에는 처음 여섯 나팔의 예언적 역사가 제시되어 있다. 우리는 세 화의 삼중 적용을 고찰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저서 Daniel and Revelation에 있는 스미스의 주석을 참조할 것이다.

화이트 자매는 우리에게 윌리엄 밀러가 요한계시록에 관해 큰 빛을 받았지만, 13장과 16장부터 18장까지에 대한 그의 이해는 올바르지 않았다고 알려준다. 이는 황폐하게 하는 세력이 둘이 아니라 셋임을 보기에 그가 서 있던 역사적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큰 빛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 9장에 있었다.

"설교자들과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신비롭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 왔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이 마지막 때에 살게 될 이들에게 특별한 유익을 주기 위해, 그들이 자신의 참된 위치와 의무를 파악하도록 인도하려고 주어진 계시임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밀러의 마음을 예언들로 이끄시고, 요한계시록에 관하여 그에게 큰 빛을 주셨다." Early Writings, 231.

밀러는 교회, 인, 나팔, 대접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도들의 시대부터 세상의 끝에 이르기까지, 일곱 가지 양태 속에서 겪는 모든 우여곡절과 변천, 모든 번영과 역경의 역사이다. 일곱 인은 교회를 둘러싼 땅의 권세들과 왕들의 행적,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 역사의 기록이다. 일곱 나팔은 땅, 곧 로마 왕국에 내려진 일곱 가지 특별하고 엄중한 심판의 역사이다. 그리고 일곱 대접은 교황 로마에 내려진 마지막 일곱 재앙이다. 이들과 함께 지류들이 합류하듯 수많은 다른 사건들이 섞여 한데 엮이며, 예언이라는 거대한 강을 가득 채워, 마침내 모든 것은 우리를 영원의 바다로 이끈다.

"이것이 내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요한의 예언의 계획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 철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 예언에서 사용된 상징과 은유들은 이 책 안에서 모두 설명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에게서 찾아야 하고,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한 부분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라도 전체를 연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음이 분명하다." 윌리엄 밀러, 『밀러의 강연』, 제2권, 제12강, 178.

언약의 사자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셋째 사자가 현대 바벨론의 심판에서 외적 역사를 대표하는 제3의 엘리야와는 달리 교회 심판의 내적 역사를 대표하듯이, 교회와 인에 대한 초기 선구자들의 이해도 같은 내적-외적 증언을 확인하였다.

인들은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된다. 이 인물 아래에서 제시된 장면들은 요한계시록 6장과 8장 1절에 나타난다. 그것들은 분명히 이 경륜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관련된 사건들을 포괄한다.

"일곱 교회는 교회의 내적 역사를 제시하는 반면, 일곱 인은 그 외적 역사에서의 중대한 사건들을 드러낸다." Uriah Smith, The Biblical Institute, 253.

유라이어 스미스는 밀러파가 교회의 내적·외적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규명하고 있었고, 제임스 화이트는 병행 역사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개관을 제시한다.

"이제 우리는 교회들, 인들, 그리고 짐승들, 곤 생물들을, 같은 기간을 포괄한다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한에서 추적해 보았다. 인은 일곱이고, 짐승은 네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생물이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에는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마지막 세 교회와 마지막 세 인은, 첫 네 교회와 첫 네 인이 그러하듯, 동일한 기간을 포괄한다고 서로 대응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 주었듯, 교회들과 인들과 생물들은 거의 1800년에 걸친 기간 동안, 곧 현재로부터 반세기 조금 넘게 앞선 지점까지는, 동일한 시기를 포괄하는 것으로 서로 일치한다." 제임스 화이트, 리뷰 앤드 헤럴드, 1857년 2월 12일.

우리는 방금 밀러파 역사의 주요 개척자 세 사람을 인용했다. 세 사람 모두 '상번제'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견지했으며, 밀러가 이해하도록 인도되어 제시했던 진리의 틀 안에서 교회, 인, 나팔에 대한 개요도 한결같이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세우신 기초에서 못 하나나 기둥 하나라도 옮기려는 자들이 들어올 때, 우리 사업의 개척자였던 연로한 이들이 분명히 말하게 하고, 또 죽은 이들도 우리의 정기간행물에 그들의 글을 다시 실어 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진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주신 신성한 빛줄기들을 모으라. 이 진리는 세월과 시련의 시험을 견뎌낼 것이다." Manuscript Release, 760, 10.

2001년 9월 11일,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 하늘에서 막 내려온 그 떡을 받아 먹고자 하는 자들을 예레미야 6장의 '옛 길'로 다시 인도하는 일을 시작했다. 알파와 오메가는 14만 4천에 들기 위해 힘쓰려는 자들이, 그분을 1840년 8월 11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것이 단지 어떤 기간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둘째 화에 관한 기간 예언의 성취였음을 깨닫기를 필요로 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이 1798년부터 1844년까지 46년 동안 그분이 밀러주의자들의 성전을 세워 두셨던 역사의 옛 길을 다시 발견하기를 필요로 하셨다.

그 역사는 쓰레기와 위조 동전과 가짜 보석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역사는 만세의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진 거짓된 기초적 메시지에 의해 가려져 있었다. 그것은 밀러주의자들의 역사, 곧 베드로가 묘사하듯이 밀러주의자들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직"으로 일으켜 세워지고 건립되었던 그 역사였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2001년 9월 11일에 강림하셔서, 마지막 때의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밀러주의자 성전이 일으켜 세워지던 역사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역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사역은 한 예언으로 예표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은 주께서 요시야라는 이름의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했다(그 뜻은 "하나님의 기초"이다).

불순종한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 요시야가 세워졌을 때, 그는 황폐해진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했다. 수리와 청소 작업 중에 "모세의 저주"가 발견되었고, 그것을 요시야 앞에서 읽자 요시야의 개혁이 일어났다. 우리는 2001년 9월 11일 이후의 "일곱 때"의 재발견과 관련하여 그 예언을 다룰 것이다.

다음 글에서 그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사탄을 섬기는 한, 그의 지옥 같은 그림자가 하나님과 하늘에 대한 그들의 시야를 가로막을 것이다.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과 같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실상을 바라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스가랴서 3장과 4장, 그리고 4장 12-1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개의 금관을 통하여 스스로 금빛 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엇이니이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르되,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그가 이르되, 이는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주님은 자원이 풍성하시다. 그분에게는 어떤 수단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믿음 부족, 세속성, 헛된 말, 그리고 우리의 대화 속에 드러나는 불신 때문에 우리 주위에 어두운 그림자가 모여든다. 그리스도께서는 말과 인격에서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시며 만인 중 으뜸이신 분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영혼이 허영으로 스스로를 높이려 만족할 때, 주의 영은 그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우리의 근시안적 시야는 그림자만 보되, 그 너머의 영광은 보지 못한다.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불들고 있는데, 그것은 풀려나 온 지면을 휩쓸고 달리려는 성난 말로 묘사되며, 지나가는 곳마다 파괴와 죽음을 몰고 간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바로 문턱에서 잠들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둔감하고 냉랭하며 죽은 자와 같이 있을 것인가? 오, 우리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숨결이 그분의 백성에게 불어넣어져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서 살게 되기를! 우리는 그 길이 좁고 문이 험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 넓음은 끝이 없다. 원고 발표집 제20권, 216, 217쪽.